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3.8.24일)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는데, 미국은 양호한 고용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유로지역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불안,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6월 3.0%보다 높아졌으며, 유로지역과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5~6%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이에 따른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수출은 월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펄트업 수요 약화와 기상악화로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

진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로 낮아졌습니다.

□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높아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매매가격은 매수심리가 강화되고 거래도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아울러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중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전망됩니다. 올해 전망치를 유지한 것은 국내 펜트업 소비 약화,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등 상방요인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음 통방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하여 2.3%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흐름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3.5%로 전망됩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